

“국가기반시설 철도 건설비용 지역민에 떠넘겨”

코레일 “호남선 신설 고속선로 많아 비싸” 증편횟수 하루 4편 불과 배차 간격 안줄어

호남선 KTX 요금·속도 반발

호남선 KTX 요금이 경부선에 비해 10% 가량 비싸게 책정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거세다. 증편 횟수 역시 일일 4편에 그치고 배차간격도 크게 줄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수도권과 반나절 생활이 가능할 것으로 알려졌던 호남고속철에 대한 애초 기대에 미흡하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호남선은 신설된 전용고속선로에서 경부선과 요금 차이가 나는 게 정부 측의 입장이다. 하지만 지역에선 정부가 국가기반시설 사업비용을 해당 지역민들에게 떠넘기려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코레일은 다음달 2일부터 운행하는 호남선 KTX 서울~광주~순창 간 요금을 4만 6800원으로 정한 뒤 지난 13일부터 사전예매에 들어갔다.

이는 기존 KTX 요금 3만 8600원보다 8200원 가량 비싼 요금이다. 문제는 호남선 KTX 요금이 경부선에 비해 비싸게 책정됐다는 점이다. 용산~광주순창까지는 304km로 1km당 요금은 154원이지만 293km인 서울~동대구 요금은 4만 2500원으로 1km당 145원이다. 호남선이 11km 길다는 점을 감안해도 4300원의 요금 차이는 너무 크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요금은 정부 기준을 적용해 산정했다는 게 코레일 측의 설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KTX 고속선로는 1km당 163.3원, 기존 선로는 103.6원의 요금을 적용토록 하고

있다. 코레일 측은 용산~광주순창은 고속선로 활용이 91.8%, 서울~동대구는 76.2%여서 호남선 요금이 비싸졌고 기존 선로 구간에서는 열차 속도도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용산~광주순창 구간 KTX의 실제 운행시간은 1시간 46분으로 서울~동대구의 1시간 50여분과 차이가 없다.

정부는 2005년 호남선 KTX 분기역을 충남 천안에서 충북 오송으로 바꾸면서 늘어나게 된 19km는 운행요금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했지만 이마저 반영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정책은 국가기반 시설인 철도 건설비용을 해당지역 주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충당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요금인상 요인이 생겼다면 고속철도가 운행되는 전 구간이 나눠서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증편횟수 역시 일일 4편에 그치면서 배차간격 역시 크게 개선되지는 않았다. 증편 노선은 주로 종착역의 아침 출근시간대에 맞춘 새벽 출발편과 저녁 퇴근 시간대 이후 출발편에 배치됐으며 피크 시간대에는 배차 간격이 20분까지 좁혀진다.

그러나 평균 배차 간격은 상행선 45분, 하행선 43분에 그쳤다. 코레일은 수요 등을 고려해 열차 배치 시간 및 정차역 등을 결정했으며 수요 변화가 예상되는 수서역 개통 후 재조정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호남선 KTX 개통을 2주일여 앞두고 비싼 요금과 느슨한 배차간격 등이 드러나면서 지역민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요금이 경부선보다 비싸게 책정되고, 배차간격도 크게 개선되지 않아 불만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사진은 신형 KTX가 순창역에 진입하는 모습.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총리 ‘부패척결’ 담화 전·현정권 갈등 조짐

해외자원 개발·방산비리 등 적시 친이계 인사들 배정 놓고 의구심 포스코 건설 압수수색 ‘신희탄’

이완구 국무총리의 부정부패 척결 담화를 놓고 전·현정권 사이에 갈등이 일어날 조짐이 보이고 있다.

이 총리가 취임 후 첫 담화에서 집중 수사 대상으로 적시한 ▲해외자원 개발 배임 의혹 ▲방위사업 비리 ▲대기업 비자금 조성 의혹 등은 대부분 전인 이명박 정부와 관련 있는 것으로 지목되는 사안들이기 때문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과 친이(친이명박)계 인사들이 이 총리가 갑자기 대국민담화를 발표한 배경, 부정부패의 대표적 사례로 굳이 이들 사안을 부각한 이유 등에 대해 의구심과 함께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다.

검찰이 지난 13일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는 포스코 건설을 전격 압수수색한 것은 정·관계와 재계를 거느린 사정 태풍의 신희탄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포스코건설 비자금과 관련해 경찰이 그간 수사해온 사건을 넘겨받아 병합 수사할 방침이다. 사정당국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미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과 포스코건설 비자금에 관련된 박모 상무 등은 출국금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규태 일광공업 회장과 함께 방산비리에 공모한 혐의로 이 회장의 측근 조모 이사를 구속하고 이 회장의 두 아들에 대한 소환 조사까지 검토하는 등 방산비리 수사를 확대하는 부분도 전 정권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사정의 첫 칼날 앞에 놓인 포스코건설 비자금 사건의 배태는 이 회사의 해외 사업 과정에서 하청업체를 통한 횡령과 발주처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 의혹이다. 더구나 포스코는 지난해 국정청 세무조사 이후 계열사들끼리 매출액을 부풀려준 혐의로 고발된 상태여서 검찰의 수사가 그룹 전반으로 확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전 정부 인사들과 포스코 측 사이의 금품 비리가 있는지 그 불씨가 옮겨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포스코건설에 이어 전 정부 인사들을 겨냥한 수사가 머지않아 동시다발적으로 터질 것이라는 관측 역시 검찰 안팎에서 제기된다.

실제로 대형 부패 수사 전담부서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도 최근 형사부와 조사1부에 배당돼 있던 자원외교 관련 각종 고발 사건을 한 데 모아 본격적인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캐나다 하베스트사 인수 과정에서 국고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감사원이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을 고발한 사건과 정의당이 자메이카 전력공사에 자본투자를 결정한 이길구 전 한국동서발전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 등이 해당된다. 한 국공립자원공사와 가스공사, 석유공사 전·현직 사장 6명과 이명박 전 대통령,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등이 고발된 사건도 특수1부가 맡았다.

아울러 전·현직 군 고위 관계자들을 겨냥한 군과 검찰의 수사가 한창이고 올 초 신설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가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수사에 나섰다. 점에서 향후 성역을 가리지 않는 ‘사정 태풍’이 거세게 일 것이라는 관측을 낳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연합뉴스

“정부, 당초 약속 깨고 분기역 변경 늘어난 운임 포함

호남선 KTX 요금 재조정하라”

새정치 호남 시·도당 공동성명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전남·전북 3개 시·도당은 15일 공동성명을 통해 호남선 KTX 요금 책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해자 광주시장 위원장, 황주홍 전남도당 위원장, 유성엽 전북도당 위원장은 이날 성명에서 “경부선 KTX와 호남선 KTX의 요금 차이가 너무 크다”면서 “정부와 코레일은 호남선 KTX의 요금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호남 시·도당 위원장들은 “‘용산~광주순창은 고속선로 활용이 91.8%, 서울~동대구는 76.2%여서 호남선 요금이 비싸졌다’는 코레일의 설명은 변명에 불과하다”면서 “용산~광주순창 구간 KTX의 실제 운행시간은 1시간 46분으로 서울~동대구

의 1시간 50여분과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호남선의 운행요금이 늘어난 이유는 호남선 분기역이 충북 오송역으로 변경돼 운행거리가 늘어나면서 오송역 분기에 따른 우회거리에 대한 추가 운임 부담이 생겼기 때문”이라며 “정부는 적어도 지난 2005년 당시 건교부장관이 약속한 대로 분기역 변경에 따라 늘어난 요금만큼은 정부에서 부담해야 하는 것이 지난 50년간 경제·사회적으로 희생당해왔던 호남에 대한 예의”라고 주장했다.

이어 “철도 건설비용을 철도 이용자들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라면서 “지금도 늦지 않았다. 정부와 코레일은 호남선 KTX 요금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유유네이처 Ginsam RG3 X150

인삼 대사사포닌 유유인삼추출액 YY-351

70여년 전통의 유유제약 인삼 대사사포닌 RG3 특허기술로 제조 인삼 대사사포닌 RG3일일(1병당) 60mg 함유 국내 우수 대학병원의 연구개발 참여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인제대학교 백병원, 경희대학교병원)

유유네이처 방문판매 지사모집

- 현재 방문판매 사무실을 운영하고 계신 분
- 건강기능식품, 화장품사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
- 웰빙사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
- 소자본 창업

문의 | 지사개설 Tel. 062-363-8600 | 010-4602-9897



yuyu nature HEALTH & LIVING